

대림 제 1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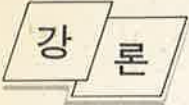
제 1 독서: 예레 33, 14-16

제 2 독서: 1데살 3, 12-4, 2

복 음: 루가 21, 25-28, 34-36

순정이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루가 21, 36).



일어나라, 깨어나라!



문 정 현 신부 / 창인동 천주교회

근년에 와서 한국천주교회는 전국적 힘을 기울여 힘을 과시해왔다. 몇 차례에 걸쳐 그 넓은 여의도 광장을 메운 주교단과 한국천주교회는 거대한 세력으로 보이기에 충분하였다. 국군의 날 행사를 치루고 난 시설을 다시 꾸며준 제단, 그 제단을 메운 주교단과 사제단, 그리고 그 광장을 메운 신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웅장하였다. 행사 끝에 죄의 보속으로 앉은 자리를 깨끗이 치우라는 제단의 목소리는 실제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언론의 칭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뿌듯한 감회가 새삼스럽다. 한국천주교회의 교세(?)는 큰 것이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서로가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지금은 우리와는 무관하게 전원이 감돌고 있다. 엔타페 작전이니 120일 작전이니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미국 정부의 고위가 소련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서울로 부산하게 드나드는 것이 심상치 않다.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지면 일주일 안에 지상의 건물 80%가 파괴된다는 국방부의 말은 끔찍한 일이다. 죽는 사람은 남북의 우리 모두다. 밥맛이 달아난다. 교세가 아무리 크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두 잿더미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썩지 않은 데가 없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전경 506부대 지성룡 일경의 참사를 보라. 휴가를 갔다가 귀대하여 죽은 사람이 탈영으로 처리되는 꼴을 보아라. 사실이 드러나면 나라가 흔들릴 비도덕이다. 수사를 기피하는 듯한 검찰을 보라. 신출귀몰한 검찰!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와 유사한 일은 비밀비재하다. 1년이 넘도록 자식의 행방을 찾아 지친 부모가 계시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70년대 이후 이 땅을 사람 사는 곳으로,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같은 의식에 다른 행동으로 좌충우돌 싸워가며 오늘에 이르렀다. 남은 것은 우리의 무기력이다. 서로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허탈감만 씹고 있다. 절망인가? 그렇다. 땅이 바닥째 흔들린다. 무너

진다. 갈라진다. 마구 흔들린다. 쓰러진다. 일어나지 못한다(이사 24, 19이하). 모든 사람은 맥이 다 풀리고 겁에 질려 있다(이사 1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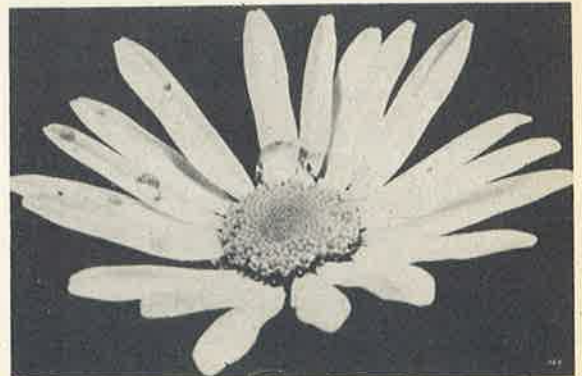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는 세력만 과시하고 사라져버릴 것인가? 스스로 깨끗한 척하다 죽어서 천당만 가면 그만인가? 아니다. 오늘 복음은 지친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 주님을 모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다.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이 계시다. 분명히 오실 그분을 믿고 일어서야 한다. 힘을 과시하지만 말고 깨어나야 한다. 성전에서의 예수처럼 잡혀 죽을망정 주님을 믿고 말해야 한다. 주님을 믿는 자답지 않게 세상 사람처럼 비굴하게, 방탕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루가 17, 26-37).

주님께서 오실 것이 확실한 만큼 갈라진 민족의 생존과 성한 데가 없는 이 사회구원을 위하여 두려움없이 몸바쳐야 할 책임이 무겁다.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새겨 살아야 한다.

○ 오실 그분을 믿고 일어서야 한다. ○

○ 힘을 과시하지만 말고 ○

○ 깨어나야 한다. ○



희망만이 사랑처럼

정 인 섭(안드레아)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과 국가는 또 그 나름대로 시간 속에 역사를 이루어 나아간다. 오류나 실수는 역사가 있는 이 세상 삼차원 삶에만 있으니, 그래서 천국과 연옥은 우리 현세 삶을 사는 지상교회를 크게 기대걸고 바라본다.

위령의 달을 보내고 이어 대림절이 시작된 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할 것이 많다.

하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지극한 복락을 누리는 성인들도 지상교회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을 맛보진 않고 있는 것이다.

한해가 저무는 것은 천국에서나 우리로서나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예수 아기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도탄에 빠졌을 당시 태어나셨다. 그분은 참으로 초라했던 부모 밑에 이 세상 삶을 시작하셨는데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다. 목수일은 2천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낮은 계급에 속한다.

늘 들던 아버지의 못질소리를 예수님은 운명 직전에도 당신의 뼈에 박히는 못질소리로 들으셨다.

인류의 역사는 그때와 비교해서 오늘날 조금이라도 진보한 것일까?

사람들은 사뭇 물질적인 기준으로 재려들지만 인간성의 깊은 테를 보면서 저울질을 해본다면 나아진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기 예수는 올해도 또 태어나시는가?

하느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천년은 하루와 같다고 했으니 이들도 채 못된 사이에 인간세계가 이룬 것이라고는 물질적 행복의 조건을 조금 다양하게 늘여 놓았다는 것 말고는 없는 초라한 우리의 현대이다.

앞선 문명을 이미 누린 우주인이 있다면 그가 보기에 우스울 따름인 인간의 자동차가 신분의 표지가 되기도 하고 인신매매와 납치의 수단으로도 쓰이는 불행한 사회지만, 이번 겨울은 생전 처음으로 나 개인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낯설고 처음인 그런 겨울로 느껴진다.

어려서 열 살도 채 안되어 고향 남원 우체국 뒷길에 무릎까지 쌓인 포드득 소리가 나는 눈 위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때 내 전신으로, 어렸으니까 전존재니 현존이니 하는 의식은 오늘의 추체험이고, 느꼈던 것은 천국의 행복이었다. 분명히 그랬다.

누추한 길 옆 판자집들의 양철대문에 반사되는 햇빛과 눈길의 흰빛이 때묻지 않은 채 내게는 물질의 본래 모습을 느끼게 했다.

천국은 느낌의 것일 수도 있고 순수의식의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육신과 영혼을 합한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이원론적이어서 피해야 할 것이라는 쪽도 있지만 천국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오고 또 가야 할 세계가 아닌가?

나는 겨울은 맑은 천국의 계절이라는 생각을 혼자 해온 셈이다.

깨끗함이라는 것, 맑고 고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오늘날 해묵은 행동이라도 되는 듯 부끄러워지는 나는 이번 대림절이 내 삶의 목직함 수직의 추노릇을 하게 됐으면 한다.

이 사회의 온갖 죄악들이 내 내부의 반사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스도가 파연 내게로 다시 오셔야만 하겠구나 하고 깨닫는다.

사실 나는 얼마나 인색하고도 탐욕스러운가?

나로 하여 사회악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인지 내 양심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나는 내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만나 뵈울 수 있어 올 대림절은 더 각별하다.

아기 예수는 곧 또 오실테니 이 세계의 종말까지 희망만이 사랑처럼 오렐 것을 믿는다.

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사악해서 혁명이 아니고는 변화가 불가능할 때 누구인들 절망하지 않을까만, 잘못 생각하여 개인의 영역으로 삶의 의의를 좁히게 될 때 전체적인 파멸은 영영 막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죄를 구조악과 어떻게 관련시켜 이를 극복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이 대림절에 해야 할 바가 아닌가 한다.

순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속죄하는 어린양

최베르나르도 수녀 / 작은 자매의 집 원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정신지체아들을 보호, 수용, 교육함으로써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천국입니다”라는 설립 이념의 글귀가 첫 눈에 들어오는 작은 자매의 집. 이곳은 문정현 신부가 장계 성당에 부임한 후 정신지체아라는 이유로 소외되어 살아가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써 86년 4월 16일 장계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그후 아동들이 많아짐에 따라 집을 신축하여 88년 4월 25일 현재의 위치인 이리 해바라기 농장 내로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신지체아들만 받았으나 차차 신체장애아도 수용하여 보호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22명의 아동에 2명의 수녀와 2명의 예비수녀, 3명의 보모가 이들의 손과 발, 입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 이들은 거의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5-15세의 아동들로, 말하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대소변을 가리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다. 이들에 대한 유일한 교육 목표는 스스로 먹고 입고 화장실을 다니도록 가르쳐주는 것뿐이다. 뒷뜰에는 하이얀 빨래가 줄을 이었다.

이곳에서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분은 성가소비녀회 소속인 최베르나르도 수녀와 정막시밀리안 콜베 수녀이

다. 1년 넘게 이들과 살아온 최 수녀, “이들은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온갖 악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작은 예수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고통과 해맑은 웃음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기에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의 웃음과 기쁨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지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봉사자들과 보모의 부족이다. 때때로 본당 어머니들이 와서 청소, 빨래, 풀 뽑는 일 등을 거들어주면서 봉사의 기쁨을 나누곤 한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장애아들, 소외당하고 인격적으로 뒤쳐져 잊혀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하느님의 자녀들이요 하느님의 사람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우리가 듣고, 말하고, 걷도록 우리 사회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어린양들이다. 그러기에 마치도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품듯 그녀는 한 어린이가 한 어린이를 가슴에 품어 그들의 뒤편 가슴에 사랑을 채워주고 있다. 참으로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작은 천국의 어린이들. 그들의 티없는 웃음이 하늘 나라를 부르고 있다.

사제의 소리

소중한 나눔의 선물

서 정 현 신부 / 페루 교포사목

주님께서는 페루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은총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이 은총은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봉헌으로써 건네어진 소중한 나눔의 선물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피땀의 결실들을 저희들에게 건네주시면서 끝내 당신들의 이름을 밝히길 거부하셨던 고마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해소 안에 들어오셔서 남편이 페루 현지 사정 얘기를 전해 듣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갖고 왔다 하시며 교해소 창틈으로 후원금을 밀어 건네주시는 한 아주머님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그분 가정에서 그만큼 돈을 준비하려면 쉽지 않은 일일테고, 게다가 익명으로 선뜻 내주시는 그 마음은 거자씨 같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일 것입니다.

평생 봉쇄구역 안에서 기도에 전념하시는 글라라수녀회 수녀님들은 당신들 양말이 떨어지면 몇 번이나 기워 신

으며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저희들 신이라고 양말 한꾸러미를 주셨는데, 이는 지금도 가슴 몽글하게 제 마음 안에 자리하여 그리스도의 가난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구 교우님들이 베풀어주시는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사리손 같은 어린이로부터 깊은 주름에 백발이 되신 할머니님에 이르기까지 모아주시는 정성어린 선교 후원금은 값지게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경 성소후원 회원님들의 정성과 여러 기회를 통하여 교우님들과의 나눔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몸소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오셔서 고생도 하셨고 여러모로 힘을 북돋아주시는 주교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형제적인 나눔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주님의 은총인가 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①



오소서, 주



한 잎 두 잎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바라보노라면 우리는 웬지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느낀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가는 세월 아쉬워하고, 조용히 한해를 뒤돌아보며 나름대로 비장한 결심을 한다. 그렇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계시기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만을 희망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대림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를 기다렸던 심정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태어나도록 준비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날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다리자.

* 대림절의 의미

대림(待臨)이란 음, 도착, 채재, 머무름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Adventus'(아벤투스)에서 유래된 말로써 그리스도의 탄생(예수 성탄의 기념적 성격)과 세상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을 말하며, 대림절은 그 기다림의 시기를 말한다. 교회 전례력상 이 시기는 새해의 시작이며, 대림 첫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포함한 4주간을 말하는데 성탄(12월 25일)이 무슨 요일이 되느냐에 따라 대림절은 빠르면 11월 27일부터 늦으면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대림절의 전례는 무엇보다도 오시는 주님께 대한 희망과 갈망으로 넘친다. 전례 기도문은 초기 교회 신자들이 의쳤던 "마라나타"(오소서, 주 예수여! : 1고린 16, 22; 묵시 22, 20)를 반복하고,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강조하며 기다림의 준비로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촉구한다.

대림 제1주간의 전례는 세상 끝날의 징조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가르친다. 그 삶의 자세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깨어 있다'는 것은

'나의 선택', 올바른 '내 삶의 방향'이 인류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께로 향한, 또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깨어 기다리는 삶이다.

대림 제2,3주간의 전례 주제는 회개와 보속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가 3, 3-6)고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구원의 시기가 도래(到來)했음을 얘기하고, 옛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의 은총과 새생명의 약속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며, 회개로써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으라는 것이다.

대림 제4주간의 전례는 본기도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 성탄을 준비하는 사건들을 상기시킴으로 예수 성탄을 잘 맞이하도록 이끈다. 말하자면 주의 첫번째 오심(탄생)과 두번째 오심(재림)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2천년 전에 이미 오셨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첫째 오심과 둘째 오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고, 항상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성사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오시고 현존하신다. 이 현재의 끊임없는 주의 오심으로 과거의 주의 강생과 재림은 하나로

신속배달
한성가스

대표 최영혜 (헬레나)

이리시 남중동 국토건설국 앞

☎ 855-1323, 855-1324

우전옥 횃집(효자동)

활어회 · 각종 회 전문
실비 봉사

김태웅(베네딕도)

제일여객 앞골목

☎ 224-0588



鮮宇觀光

- 해외여행 · 여권 · 비자
- 유학 · 신혼여행
- 항공권 발매
- (구) 성모병원
- ☎ (0652)87-9797
- 이종길(요한)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예수여!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 안에서 더 긴밀히 현존하시도록 회개와 보속,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시기인 것이다.

*** 대림절 -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림절은 2천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도록 주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세말에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교회전례는 회개와 보속의 상징으로 미사 때 보라색 제의를 입고, 푸른 전나무로 대림환을 만들어 네 개의 초를 꽂아두고 주일마다 불을 켜가면서 가까이 오시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도록 가르친다. 대림절 메시지 역시 우리에게 회개와 보속, 희망과 기쁨을 전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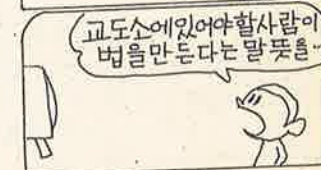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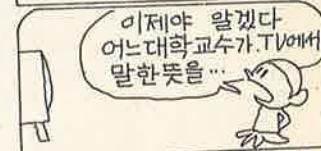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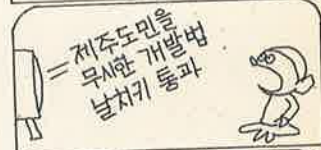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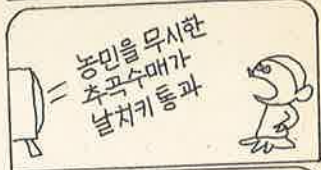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

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한다. 언제부턴가 집단 이기주의의 내지는 공범의식이 조장된 우리 사회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감증에 빠져 있으며 오히려 냉소를 보낸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재벌총수가 양심선언을 하는가 하면, 돈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깨끗한 선거풍토를 외치고 자식을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가 교수를 협박 돈을 요구하다 동시에 수감에 채이는 세상이다. 그뿐이 아니다. 살인, 인신매매, 유괴 등 인간의 생명마저 경시하는 풍조를 보면 우리 사회는 윤리도, 도덕도 없고, 돈과 힘이 지배하는 것 같다.

통계에 의하면 전인구의 1/3이 하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데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아마 그것은 주의 사랑과 현존을 우리 삶으로부터 분리하여 생활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절은 돌아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리는 캐롤과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내적인 마음의 준비없이 외적인 흥행과 낭비와 향락이 설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려 이 세상에 빛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 회개와 보속으로 마음을 비워 주님 머무는 구유를 만들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서로 기도하고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자.



신간 서적 - 마리아를 통한 승리

- 레지오 마리에 교본 해설서
- 레지오 단원의 필독서

프랭크 더프/김영일 6,500원 성바오로출판사 구입처: 전국성바오로서원 전주(0652)252-3398

제주피정(피정 및 관광)

2박3일 과정, 3박4일 과정
장소: 제주도 '형제의 집 피정센터'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서울 (02)516-3404, 548-7095
중부 (0431) 52-8559

성모 지압 침술원

디스크 및 제반 증상 치료를 위한 지압과 침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원장 박종민(가브리엘)
전주시 서신동 298-8(서신동 상당 옆) ☎ 77-5997

“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긴밀히
현존하시도록
회개와 보속,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시기이다.
”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당전화 75-0550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왕실폐백
전주 중앙시장 삼가 내
삼례주단 앞
황화순(가타리나)
손정자
☎ 75-7041, 자택 223-4224

황실 커튼·홍패션
커튼 전문
각종 침구·훈수·수예·
브라인드
마옥연(가타리나)
동산동 우신아파트 정문 앞
☎ 212-1079

뿌리를 찾아서

황등 성당

— 돌산에 심어진 견고한 신앙지 —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화강석 생산지로 잘 알려진 황등지역은 본시 함열군의 일부지역과 임피군의 일부지역이 분리되어 오늘날의 익산군의 일개면이 된 곳으로 황등 본당은 1945년경 이리 본당 관할의 공소로 발족하였고 발족 당시 신자수는 3세대에 불과했다.

초기에는 별도의 공소건물을 마련하지 못하고 가정집을 임시 집회소로 삼아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공소예절을 하였고 본당의 설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1월의 일로, 관할 본당 정재석(鄭在石·요셉) 신부의 지원과 성모회의 자금으로 현 본당 소재지의 밭을 매수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1960년 4월 26일 황등 공소는 월성 공소, 신등 공소, 오룡 공소와 함께 이리 본당에서 분가하여 본당으

로 승격하였으며 관할구역은 익산군 황등면, 삼기면 전역, 함라면 일부, 이리시 일부로써 본당 승격 당시 400여명의 신자로 출발, 현재 1,300여명의 신자와 23개의 활동단체를 가지고 있다.

1960년 성당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12월 준공하였고 1968년 12월 다시 증축, 1986년 11월에 개축공사를 하였으며 그외에도 성당 부속건물로 사제관, 수녀원, 사무실, 신협건물 건축 등 담임 신부들과 신자들이 농촌교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많은 건축비의 충당과 노력 봉사 등으로 힘을 모아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나갔다. 또한 재작년에 주임 성민호 신부에 의해 비좁고 낡은 사제관을 신축하는 등 일개 성당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본당 출신 성직자로서 문정현 신부의 1분과 7분의 수도자를 낸 곳으로, 너른 들과 수려한 돌산을 주위로 한 농·공의 명지(名地)에 반듯하게 자리한 황등 성당은 오늘도 여러 신심단체와 개인적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도직에 충실한 협력자들로 살아 가고 있다.



명상의 자리

오소서, 주님이시여

주여,
고통에 신음하는 인류가
절망 속에서 하소하며
당신의 자비만을
기다리나이다.
세상은 거칠고 황량한 사막,
꿈일 줄 모르는 전쟁은
당신의 창조물들을
무참히 파괴해버렸나이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통곡소리.



오, 하느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안에
사람들의 불안스런 눈길 안에
그들의 근심 가운데
언제나 예수는 계시나이다.
당신은 모든 세대보다 앞서 계신 분.
우리 위에 성령을 보내시고
아드님을 통하여
당신 구원을 주시니
하느님,
당신 사랑은 영원하나이다. 아멘!

개업
롯데오피스텔2층 숙녀복
전문점 202호 하나네집
대표 김 베드로
이 경 회(비비안나)
고사동 코리아극장 앞
가게 83-8649, 자택 291-9285

삼천 까지 산장

대표 안 승 래
오 명 래(아네스)
완산구 삼천동 국립박물관 옆
☎ 223-3778

이 황 주 유 소

이 명 구(베네딕도)
황 연 화(올리야)
☎ 856-8998

결혼·회갑·똥·기타
출장 전문

허바 허바 시장

권 문 오(안드레아)
전주시 효자동1가 193-7
☎ 221-4802, 224-1720

교 구 소 식

❖ 재우 평의회

- 때 : 12월5일(목) 오전10시
- 곳 : 교구청

❖ 축! 축성식

- 때 : 12월7일(토) 12시
- 곳 : 장수 성당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12월8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12월7일(토)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사랑의 다리' 1일 피정

- 때 : 12월2일(월) 9시30분-16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강사 : 박성팔 신부(홍보국장)
- 대상 : 회원 및 일반 신자
- 회비 : 5,000원(중식 제공)
- 마감 : 11월25일까지
- 문의 : (0652) 84-5290

❖ 성모의 기사회

- 때 : 12월7일(토) 오전10시
- 곳 : 효자동 성당

❖ 루갈다회 미사

- 때 : 12월5일(목) 오후3시
- 곳 : 치명자산

❖ 파티마의 성모 푸른군대 피정

- 때 : 12월5일(목) 10시-15시 반
- 곳 : 덕진 성당
- 강사 : 강인찬 신부
- 준비물 : 미사도구, 묵주, 도시락

❖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글라라봉쇄수녀회 원장수녀의 모친 손바울라께서 11월25일 선종

❖ 시청각 통신성서교육 안내

1. 신구약성서 입문과정(2년)
 - 구비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 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원서교부 및 접수 : 매년 1월1일-2월10일까지
 - 원서대 : 3,000원
 - 교부처 : 전국 성바오로 서원, 시청각 통신성서교육부 (02)987-4004
2. 신구약성서 중급과정(4년)
 -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수료자
3. 바울로 영성사상과정(1년)
 -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수료자
4. 문의 : 성바오로 서원 (0652)252-3398

❖ 축! 영명

- 3일(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고경훈, 주목성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성소모임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12월8일 오후1시
- 곳 : 본원 (0652)84-3231

❖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때 : 12월8일 오후2시
- 곳 : 숲정이 성당 수녀원 (0652)252-9567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12월8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 착한 목자수녀회(피정)

- 때 : 12월15일 오전10시-오후5시
- 준비물 : 필기도구, 회비-1,000원
- 연락처 : (02)463-8055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나 하나만이라도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것이 그 나라의 승용차 대부분이 작다는 사실이다. 이태리의 경우 1,000cc 이하가 50%, 프랑스는 36%, 일본의 경우 660cc급 이하 초미니 승용차가 26%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중·대형 승용차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2001년에는 자동차 수가 약 1천2백만대나 된다고 하니, 이왕이면 큰 것과

고급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우리의 그릇된 관념과 내 돈으로,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기적 발상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먼저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주위의 시선과 그릇된 자격지심을 버리고 근대적인 관념과 사고방식으로 인류와 자연,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용단을 내리는 삶이 요구되는 때임을 잊지 말자.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디도)

혼수(회갑) 옷감, 혼수이불
맞춤, 약복, 커튼

서울주단

보드론 이불 전주대리점
(중앙 성당 옆)

김 완 준(안토니오)
박 윤 화(베로니카)

☎ 252-0453, 77-5095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루벤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 민 구(프란치스코)
유 해 미(마리아)

효자동 한양 운남아파트상가
☎ 224-169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1. 가정방문: 3일-중노2가 1, 2번 4일-중노2가 3번, 5일-중노2가 5번 2. 사목회 상임위원회: 6일 저녁 7시 30분
3. 반희장 모임: 5일 10시 30분 4. 성서시: 5일 저녁 7시
5. 울뜨레아: 오늘 저녁 7시 30분 6. 자모회: 3일 어머니미사 후
7. 병자 봉사체: 6일 각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사무실에 접수하시
기바람. 8. 성심회 월례회: 4일 어머니미사 후
9. 사목회 정기총회: 8일 후 3시 10. 세례식: 12월 21일
11. 성가 경연대회: 24일 12. 판공성사: 12월 10일~20일까지
13. 교무금 납부에 좀더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14. 축! 결혼: 8일 후 1시 신랑-정평철(암브로시오) 신부-박영애
15. 금주침소: 중노2가 3, 5번 차주침소: 중노2가 6, 7번
☐ 지난주 불헌금: 912,370원 ☐ 교무금: 2,495,128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군

1. 세대주 면담 일정: 12월 4일-7일까지.
시간-오후 3시~5시, 밤 7시 30분~9시. 기타 유인물 참조
2. 성모상 건립 헌금: 이경록(8만원)
3. 레지오마리아 연총 친목회: 12월 10일(화) 저녁미사 후
4. 모임: ①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②대건회(공식미사 후) ③
구역분과회(3일 오전 10시) ④자모회(5일 오전 10시) ⑤밀암회(6
일 오후 6:30분) ⑥요셉회(8일 공식미사 후) ⑦푸리아(8일 오후
2시) ⑧청년회(8일 저녁미사 후)
☐ 성당침소(7일): 구세주의 모친Pr. 일치의 모후Pr.
금주전례: 오교성 독서-이승노씨 부부 봉헌-이흥민씨 가족.
차주전례: 황만금 독서-지혜용씨 부부 봉헌-양은수씨 가족.
☐ 지난주 불헌금: 631,200원 ☐ 교무금: 1,470,563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축 견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지난주 불헌금: 263,140원 ☐ 교무금: 7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대림 제1주일!

1. 회의: ①반희회-12월 1일(오늘) 공식미사 후 ②자모회-12월 4
일(수) 오전 10시 30분 ③푸리아-12월 1일(오늘) 오후 2시
④프란치스코 3회-다음주일(12월 8일) 오후 2시
2. 알림: ①91추개관공성사-12월 3일부터 평일 저녁미사 후(3
일~20일) 금년 한해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미
리 준비 하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판공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성사표는 사무실에서 서수시 발부함)
②에비자집중교리: 12월 6일~20일 ③영세식-12월 22일
(일) 공식미사중(※ 영세자와대부모는 오전 9시 30분까지
오셔야) 시간 엄수요.
④레지오마리아 연총 친목회-12월 7일(토)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불헌금: 613,250원 ☐ 교무금: 1,17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푸리아: 공식미사 후
2. 구역장·반희모임: 3일(화) 오후 3시
3. 전신자 반모임연수: 11일(3단지아파트동편), 12일(3단지아파
트서편), 13일(서완산동1가, 안행동), 18일(서완산동2가, 효자마
음), 19일(신촌, 금호구역)→매일 오후 1시~5시, 17일(전구역
남교우)→오후 7시 30분
4. 성탄 판공 성사: 용머리 까지 참고
5. 통신교리 이수자, 유아영세신칭: 사무실
6. 주간중 미사: 7일(토) 대축일 오전 10시 미사
7. 무료 침술, 지압: 매주일 공식미사 후 나교리실(김수백형제 봉
사.)
8. 불우이웃돕기 성탄카드 판매
☐ 지난주 불헌금: 674,830원 ☐ 교무금: 1,20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성심회보수현금 ※ 교무금납부 ※ 주일금배가운동

1. 미사에 늦지 않도록 ※ 성심회보수현금 ※ 교무금납부
2. 금주모임: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제수극라라형제회(오후 1시 30분)
3. 성가정회: 2일(월) 오전 11시.
4. 「전동100년」 화보집판매: 권당 20,000원 사무실에서.
5. 개충별 교육: 5일~7일 저녁미사 후 대상: 30세 이상 기혼남성.
6. 성심유지원 원아모집: 원서교부-2일(월) 접수-7일(토) 오전 9
시(선착순) 대상: 86년, 88년. ☐ 지난주 불헌금: 1,694,660원
7. 성체강복 및 조배: 5일(목) 오전 10시 8. 병자영성체: 6일(금)
9. 차주모임: ①자모회(오전 10시) ②사목회(공식미사 후)
③구역봉사자모임(저녁 7시) ④일치의모후Cu(오후 2시)
10. 윤지중·권관선 순교20주년 기념미사: 8일 공식미사.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구

※ 대림시기: 사랑을 나눔으로 성탄을 준비 합시다.

1. 성시간 및 성체조배: 5일 후 7시 30분, 잊지 말고 참석 바람.
2. 사목회 상임위원회: 7일 후 8시, 분과부장은 참석 바랍니다.
3. 유아세례: 7일 후 2시 30분, 대상자는 신청서 미리 접수바람.
4. 공소회장 교육: 7일~8일 천호피정의 집. (센터 4시 출발)
5. 침소년 정기총회: 8일 후 5시(성찬식과함께) 빠짐없이 참석
6. 구역. 반미사: 3일 12-2 후 3시, 12-3 후 8시, 5일 14-4 전10시
30분, 6일 10-2(우성) 전10시 30분, 10-1(신일) 후 8시.
7. 구역 반희장 연수: 3일 전10시 30분, 불참자 대리인 참석
8. 회의: 푸리아-오늘 후 2시 30분, 성심회-4일 어머니미사 후
9. 축! 혼인: 8일 후 1시, 신랑-김부국(에드워드)
신부-박애숙(알레나)
☐ 지난주 불헌금: 647,790원 ☐ 교무금: 1,075,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사목회: 오늘미사 후.
2. 구역반장 월례회: 3일(화) 오후 8시.
3. 성모회·청년회: 다음 주일미사 후.
4. 울뜨레아: 10일(화) 오후 8시.
5. 남성 레지오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6. 고인자를 위한 미사: 7일(토) 저녁미사.
7. 대인자를 위한 미사: 14일(토) 저녁미사.
8. 금주전례: 최경순 독서·봉헌-구정삼, 이계호
차주전례: 김용우 독서·봉헌-한기일, 윤경호

*** 호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 오늘부터 새로운 「다」 해가 시작됩니다. 사목회장 황 수 석

1.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통하여 성체인애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룰
시다. 매주 화요일 후 7시: 성시간 및 성체강복(성체조배실)
2. '92년 사업계획서 및 '91년도 사업결산서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람(각 분과별, 단체별) 3. 모임 안내: ①사목회-금 후 8
시 ②안나회-오늘 11시미사 후 ③카리타스회-토 후 10시 ④구역
봉사자 모임-수 10:30 ⑤성모기도사화토 후 10시 ⑥울뜨레아-다음
주 11시미사 후 4. 어머니·청년성가대에 회원 모집 5. 청소년
들에게 많은 관심을. 6. 구역 형제회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개시관 참조) 3.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①일 10:40 ②목 후 7
:30 ③금 10:40 성인반 ④중·고생-토 오후 6시 8. 축! 성
마리아 원죄없으신 잉태 대축일! 7(토)
밀린 교무금을 속히 납부바람: 총 수입액 108,150,000원
납입액 71,571,000원(66.1%) 본당을 위한 2차헌금 450,980원

*** 호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3. 푸리아: 공식미사 후 3. 사목회장집거
기: 오늘 공식미사 후(제대제장, 반희장 참석바람) 4. 제대회, 빈
첸시모임: 1일피정(대림준비) 많은 참석바람 희망: 1,500원 일
자: 9(월) 9시미사 후 5. 여성분과회: 6(금) 어머니미사 후 6.
판공성사: 3(화) 저녁 한신 5. 4(수) 롯데 1.3. 5(목) 롯데 5.6.
6(금) 2시 안심리, 저녁 롯데 7.8.
차주모임: 연차 총 친목회, 울뜨레아
신축헌금 불헌액: 630,000원
금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 ①정상수 ②조숙혜
기도-①박천운 ②임진채
차주전례: 해설-강진성 독서 ①권병채 ②이정희
기도-①최자성 ②김숙경 ☐ 2차헌금: 501,800원
☐ 지난주 불헌금: 987,200원 ☐ 교무금: 395,000원